

## 사 랑 의 장 소

현대인의 고민은 어떤 권위나 사회 구조 속에 자신을 완전히 매몰시켜 버릴 수가 없다는 자기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항거의 바닥에는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성 사회 제도 속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영향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장차 그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에 자신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현대의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과연 인간의 삶의 공동체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앞서 어떤 정신적인 바탕에 다 경제 건설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2 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인 기반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지 않고, 그것을 다만 한 인간이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의, 식, 주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직장이 없어 짤짤 매어도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바탕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느끼는 위기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신이 막을 수 없는 고독감에 사로잡혔다가도 어떤 순간에 공동체 속에 자신을 무작정 매몰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고독과 연대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 쪽에도 만족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데 현대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또 그렇다고 군중 속에 자신을 완전히 매몰시킬 수도 없는 것이 현대인이 느끼는 갈등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고독도 아니고, 연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제3의 장소, 즉 사랑의 장소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고독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군중 속에 매몰되지 않는 초월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가정도 거기에 사랑이 깃들어 있을 때만이 가정이 되며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집이라는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을 적에 그것이 참된 교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요,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엄격한 규율 밑에 있는 군대 안에도 전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약동하는 군대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군대는 다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으면 집이라는 장소는 있어도 가정이라는 장소는 없는 것이다. 한 장소가 고독과 연대의 대립을 극복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제3의 장소인 사랑의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의 사랑, 관심, 이해, 존경, 돌봐 주는 일을 해야 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내 이웃이란 내 곁에 있는 전우나 상관일 수도 있고, 나의 부하일 수도 있다. 내 이웃이란 나의 아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선배, 스승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을 찾는 동시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있는 가를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때로는 내 이웃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이웃을 찾는 일과 내가 남의 이웃이 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남을 도와 주고, 남을 돌봐 주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일이며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독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공동체 속에 매몰되는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장소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담만 될 뿐이고 기쁨이나 활기를 띄지 못하게 된다. 다만 사랑의 장소 안에서만 생기가 돌고, 무기를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장소에서는 <너와 나>가 진실로써 만나며, 자신의 약점을 주저하지 않고 보여 주는 정직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일이 일어난다.

현대의 모든 문제의 바닥에는 이러한 사랑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고민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아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회구하고 있다. 내세의 구원보다 현세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구원 말이다. 생활 밖에서 찾는 구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니 현실 생활을 통해서 구원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구원의 길은 다만 사랑의 장소를 찾아내어 고독과 매몰의 분열을 이기고, 온전한 조화를 성취한 생활 속에서 얻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